

輸出執着, 輸出補助와 輸出部門의 適應

李 天 杓*

<目 次>	
I. 序 論	IV. 短期的 適應過程
II. 모 델	V. 餘 言
III. 長期均衡의 變化	

I. 序 論

開發途上의 小規模經濟가 變化하는 世界的 與件에 效率的으로 對處하면서 經濟成長을 企圖하려 할 때 흔히 擇하는 輸出主導型 成長戰略(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은 南美諸國에서 많이 試圖되었던 輸入代替型 成長戰略(import substitution growth strategy)보다 效率的인 것으로 여겨진다.⁽¹⁾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은 經濟成長을 追求해 가는 過程에서 不可避하게 國際市場과 直接 또는 間接的 關係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關係가 그것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經濟內部的 많은 部門에 介在될 수 있는 歪曲을 除去하거나 限定짓는 效果를 갖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判斷의 核心的 根據가 된다.

輸出主導型 戰略은 國際市場에서의 競爭性에서 볼 때 推進되어서는 아니 될 投資事業이 關稅 및 非關稅障壁에 의한 保護나 不合理하게 높은 價格策定에 의하여 無理하게 推進될 可能性을 적게 하거나 無理하게 推進될 때 介在하는 無理한 程度를 一定한 限度內로 限定 지운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助教授. 本稿는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의 支援으로 進行 하고 있는 研究「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의 反省과 改善」의 一部로서 마련된 것이다.

(1) 이러한 두가지 成長戰略의 比較와 長·短點의 論議에 대해서는 *Foreign Trade Regime and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8이 가장 包括的인 參考資料가 될 것이다. 특히 이중에서는 A. Krueger, "Liberalization Attempts and Consequences"와 J. Bhagwati, "Anatomy and Consequence of Exchange Control Regime"이 有用하다.

生産된 製品은 國際市場에서 販賣되어야 하겠기에 生産活動이 國際市場의 變化에 敏感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世界經濟의 與件에의 適應이 企業의 存立과 成張의 關鍵이 된다는 데서 企業은 國際市場의 試驗을 항상 받으며 또 그것에 이겨나가야 되니 效率性을 지닐 수 있다.

한편 輸出을 通하여 製品의 需要가 擴大되니 大規模生産의 利益도 도모할 수 있게 되나, 實上 이런 利益은 國際競爭力이 前提된 다음에 實現될 수 있는 것이기에 國際市場에서의 試驗이 提供하는 利點보다는 副次的인 것이다.

大戰略으로서 輸出主導型 戰略이 優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戰略의 細細한 內容에 들어가서는 多樣한 形態를 가질 수 있고 여기에 따라 相當한 程度의 歪曲이 介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을 取하는 經濟에서는 이러한 次元의 歪曲을 解消 또는 是正함으로써 相當한 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의 反省과 改善」에 관한 研究는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이 改善될 수 있는 많은 點을 隨伴하고 있으리라는 짐작을 가지고 試圖되었다. 本稿는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을 取하는 經濟의 特性의 하나라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可能한 限 極大의 輸出을 하려는 이른바 輸出에의 執着이 지니는 短期的 動態的 效果를 照明해 보려는 데 焦點을 둔다. 輸出部門의 行態方程式의 形式을 빌려 輸出에 從事하는 民間部門의 輸出에의 熱度를 表現해 보고 또 政府部門의 輸出促進을 위한 各種 支援行爲도 輸出補助라는 變數를 通해 部分的 間接的으로 表現해 본다.

輸出을 通한 成長을 企圖할 때의 輸出이란 輸出量만을 意味해서는 안된다. 輸出額과 더불어 實質所得의 變化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는 交易條件 또는 輸出品의 다른 財貨에 대한 相對價格의 變化도 살펴보아야 하고, 物量變數와 더불어 이러한 價格變數가 厚生 全般에 미치는 效果가 總括的으로 考慮되어야 한다. 物量側面에만 執着하다가 심한 價格側面의 變動을 招來해 그러한 努力이 스스로의 意圖를 否定하는 結果를 가져 올 염려도 있으니, 偏派의 執着은 超克되어야 妥當할 것이다.

本稿의 焦點은 몇가지의 外部的 衝擊이 있을 때 非產由經濟인 輸出主導型 小規模開放經濟의 輸出部門이 比較的 短期에 經驗하는 動態的 適應過程(dynamic adjustment process)을 照明해 보려는 데 있다. 몇가지 外部的 衝擊으로는 ① 油價引上和 더불어 招來된 非產油經濟에 대한 一般的 交易條件의 惡化와 ② 汎世界的 景氣沈滯가 列擧되고, 이에 對處하기 위하여 輸出主導型 經濟가 輸出支援 또는 輸出補助의 程度를 調整하는 努力 또한 論議의 對象이 된다.

여기에서의 關心이 되는 經濟는 輸出主導型 經濟라는 面에서 다른 경우와 區別된다. 國民經濟 全體의 立場에서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이 크고 重大하기 때문에 輸出品을 生産하고 世界市場에 供給하는 行爲가 後述하는 바와 같은 特徵을 가지게 된다. 同時에 이 經濟의 輸出品은 世界市場에서는 比較的 새로운 商品이 되겠기에 海外部門으로부터의 保守的 購買 行爲가 이루어 진다고 본다. 이에 따라 前者에 對應하는 이 經濟의 輸出供給行爲와 後者に 對應하는 海外部門의 輸出需要行爲가 各各 獨立적으로 規定되면서 同時에 兩者의 相互作用에 의해 「實現된 輸出」이 決定된다.

輸出供給行爲는 輸出主導型 經濟의 예컨대 輸出目標의 達成 等の 價値에 執着하고 있는 行態를 反映하고, 輸出需要行爲는 海外市場에서 輸出主導型 經濟의 輸出品을 함부로 사지는 않는다는 意味의 保守的 習性을 內包한다. 이러한 行態나 習性은 短期的 行態와 長期的 行態가 相異하며, 長期的 行態와 短期的 行態가 相異하다는 이러한 事情이 定差方程式(difference equation)을 通하여 表現된다.

定差方程式을 手段으로 하는 限 하나의 方程式을 通하여 短期的인 狀況에서의 行態인 短期的 輸出供給行爲와 短期的 輸出需要行爲는 勿論 모든 適應이 完了된 狀況에서의 長期的 行態인 長期的 輸出供給行爲와 長期的 輸出需要行爲가 各各 서로 獨立적으로 規定된다.

그러면 短期的 輸出供給行爲와 短期的 輸出需要行爲에 依據하여 「短期에서 實現되는 輸出」이 決定되고, 長期的 輸出供給行爲와 長期的 輸出需要行爲에 依해 「長期에서 實現되는 輸出」이 規定된다. 同時에 이러한 長期的으로 實現되는 輸出은 短期的으로 實現되는 輸出的 數期를 通한 適應過程에 의해 具體化 實際化된다.

以下에서는 外部的 衝擊에 의해 變化하는 「長期에서 實現되는 輸出」을 比較靜學의 手段을 가지고 考察하고, 다음 短期的 輸出供給曲線과 短期的 輸出需要曲線이 時間을 지나며 移動(shift)하는 樣狀을 觀察하는 過程을 거쳐, 「長期에서 實現되는 輸出」로서 代表되는 長期均衡點을 向한 短期的 適應過程(short-run adjustment process)을 解明한다.

比較靜學의 素材로서는 「長期에서 實現되는 輸出」을 左右하는 世界經濟的 與件으로 最近 小規模經濟에 대한 가장 重大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世界的 景氣沈滯」와 原油의 相對 價格의 急騰에 따른 「交易條件의 不利化」가 다루어진다.

II에서 分析의 틀이 되는 모델이 說明된다. 여기에서 長期 및 短期에서의 輸出供給行爲와 輸出需要行爲가 定式化되며, 또 前者의 定式化를 위해 必要한 輸出主導型 開放經濟의 特性이 論議된다. III에서는 앞에서 列擧한 두가지의 世界經濟的 衝擊에 對應하여 「長期에서 實現되는 輸出」 또는 長期均衡點이 各各 어떻게 變化하겠는가를 살펴본다. IV에서는

이들 두가지 경우에 대해 短期的 輸出供給曲線과 短期的 輸出需要曲線이 各各 어떻게 移動하여 長期均衡點에 接近해 가는가를 밝히는 短期的 適應過程이 다루어진다. 또 이러한 短期的 適應過程의 修正을 위하여 輸出推進의 努力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바람직스럽겠나를 생각해 본다.

II. 모 델⁽²⁾

1. 輸出供給行爲

(1) 輸出主導型 經濟의 몇가지 特性

本論의 展開를 위해서는 우선 輸出供給行爲와 輸出需要行爲가 定式化되어야 하겠고, 前者를 위해서는 輸出主導型 經濟의 特性이 究明되어야 하겠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이 輸出主導型 經濟를 規定지운다.⁽³⁾

(가) 輸出主導型 經濟란 輸出部門이 經濟의 維持와 成長에 主要部門이 되는 經濟이다. 다른 경우와 달리 輸出部門이 非輸出部門 對比 차지하는 比重이 相對的으로 크고 經濟社會的으로 重要하게 評價되고 있다. 아마도 輸出主導型 經濟의 循環과 成長은 輸出部門의 그것에 陽的으로 依存한다. 經濟社會的으로 可用한 資源의 相當部分이 輸出部門에서 가장 效率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經濟의 순탄한 維持와 發展을 위해서는 輸出部門의 維持와 發展이 必要하다.⁽⁴⁾

(2) 以下の 모델은 定差方程式이 媒介가 되는 動態모델이다. 技術的인 側面에서 보아 通常的으로 動態모델을 正當化하기 위해 動員되는 二種의 手段이 있다. 그 하나는 모델內의 行態方程式의 說明因子에 豫想(expectation)을 導入하는 것이다. 豫想值의 決定이 數期에 걸친 過去의 變數值에 依存하는 限 豫想值를 說明變數로 行態方程式에서 使用하면 그 行態方程式은 終局的으로 定差方程式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行態方程式의 定式化에 있어 部分的 適應의 論理(partial adjustment mechanism)를 使用하는 것이다. 完全히 適應을 하지 않고 部分的으로만 適應하는 論據로서는 다시 完全한 適應에는 適應費用(adjustment cost or transactions cost)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過去로부터 一定한 慣習을 가지고 있어 그 慣習으로부터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벗어나지 못한다든지(habit persistence)하는 것이 列舉된다.

以下에서는 輸出供給行爲의 定差方程式으로의 定式化를 위해서는 豫想值를 活用하는 첫번째 手段이 動員되었고, 輸出需要行爲를 定差方程式으로 定式化하는 데에서는 두번째 手段인 部分的 適應의 論理가 援用되었다.

(3) 두말할 必要도 없이 여기의 輸出主導型 經濟에 대한 性格規定은 하나의 試圖에 不遇한 것이요 本論의 展開上 創案된 것이다. 아마도 輸出主導型 經濟에 대한 規定은 많은 議論의 對象이 되야 할 次後의 課題의 하나가 될 것이다.

(4) 輸出主導型 經濟(export-oriented economy)는 흔히 輸入代替型 開發戰略(import substitution development strategy)을 取하는 經濟와 對立되어 說明된다. 後者が 可能한 限 많은 種類의 産業을 國民經濟內에 保有하고 이들 産業間의 産業聯關係의 極大的 活用을 目標로 하고 있다면, 前者는 相對的으로 넓은 世界市場을 相對로 하고 個別産業의 規模의 經濟를 누리고자 하

(나) 經濟社會的으로 輸出이 重要하기 때문에 輸出을 維持 增大시키기 위하여 個別的인 輸出行爲의 利潤動機를 刺戟하는 常備的인 輸出補助制度가 存在한다. 이러한 輸出補助制度는 一種의 政策手段이 되어 外部的 與件變化에 대한 對應方案으로서 動員될 수 있다. 즉 輸出補助制度는 後述되는 바 短期的 輸出推進 또는 輸出制御를 가져 오는 手段이 될 수 있다. (5)

(다) 經濟 全體的으로 一定期間 동안 輸出할 輸出總額을 計劃하고 이를 輸出目標額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實際로 輸出目標額을 決定하는 過程에서 輸出目標額은 輸出補助制度下에서 利潤動機에 支配를 받는 個別輸出品生産者의 輸出에 대한 豫想의 合計로서 이루어지고, 일단 輸出目標額이 決定되고 나면 個別輸出品生産者들은 거기에 對應하는 自己의 豫想量을 生産한다. 즉 輸出品生産의 大宗은 輸出에 對한 豫想에 依存한다.

(라) 計劃된 輸出과 實際로 實現되는 輸出은 相異할 수가 있다. 相異해지는 原因은 輸出品生産者들의 豫想이 잘못되었거나 國內市場으로부터 輸出品에 對한 需要가 급속히 擴大 또는 縮少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國內 및 海外的 市場條件에 依해 要求되는 輸出이 目標된 그것과 다르다면 이 둘 사이의 差異는 部分的으로는 輸出品價格의 變化에 의해 解消되나 大部分은 輸出品生産者의 即刻的인 生産의 調整과 調整된 것의 輸出으로써 메꾸어진다. 즉 애초의 計劃 以後 計劃 以上 또는 以下로 實現되는 輸出에 대한 「增大 또는 減縮시키는 速度 내지 適應」은 대단히 迅速하고 能率的이다.

(마) 輸出主導型 經濟가 輸出하는 輸出品의 大宗은 世界市場에서의 地位 내지 聲價가 鞏固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世界市場의 需要는 後述하는 바 部分的 適應(partial adjustment)의 特性을 가지게 된다.(勿論 이 點은 輸出供給行爲가 아니라 다음에 定式化되는 輸出需要行爲와 관련되는 輸出主導型 經濟의 特性이나 便宜上 여기에서 記述한다.)

(2) 輸出主導型 經濟의 輸出供給行爲

이제 위와 같은 特徵을 가진 輸出主導型 經濟의 輸出供給曲線이 定式化되어야 하겠다. 以下에서는 이러한 定式化를 두 段階를 거쳐 試圖하려 한다. 우선 通常의 國際收支모델에서의 輸出供給行爲를 引用해 使用한 다음 거기에 輸出主導型 經濟의 特性을 加味하는 修正을 피

여 比較的 短期에 動員可能한 資源을 規模의 經濟가 있거나 輸出이 容易한 몇가지 產業에 重點的으로 投下하고 그 產出物을 原則的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限前者에 비해 前者에게는 輸出部門이 國民經濟中 차지하는 比重이 크고 또 輸出部門의 維持 및 發展이 經濟 全體의 維持 및 發展에 대단히 緊要하게 된다.

(5) 小規模經濟의 輸出은 定義上 그 自身의 輸出增大를 위한 積極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長期的 窮極的으로는 海外로부터의 需要에 의해 決定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小規模經濟의 輸出에 대한 主導의 努力은 오로지 短期에서만 意味가 있겠다. 이런 點에서 아래에서는 輸出補助制度의 活用을 통한 輸出의 推進 또는 調整은 一種의 短期的 安定化政策手段이라고 認識한다.

한다.

本論의 對象이 되는 經濟에는 輸出財(exportable goods), 輸入財(importable goods), 그리고 非交易財(nontradable goods 또는 home goods)라는 三種의 財貨가 存在한다.⁽⁶⁾ 輸出財의 價格을 P_x , 輸入財의 價格을 P_M , 非交易財의 價格을 P_N 이라고 하자. 그러면 論理上 이들 3個의 價格 사이에는 2個의 相對價格이 存在한다. 예컨대 $p_x = P_x/P_N$, $p_m = P_M/P_N$ 이 그것이다.

이제 이들 3個 財貨가 需要와 供給 兩側에서 모두 粗代替(gross substitution)關係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供給側에서는

$$Y_X = Y_X(p_x, p_m), \quad (1-1)$$

(+)

$$Y_M = Y_M(p_x, p_m), \quad (1-2)$$

(-)

$$Y_N = Y_N(p_x, p_m). \quad (1-3)$$

(-)

이때 Y_X , Y_M , Y_N 은 各各 輸出財, 輸入財 및 非交易財의 國內에서의 生産量이고, 相對價格인 p_x , p_m 밑에 붙은 + 또는 -는 該當偏微分係數의 부호이다. (偏微分係數에 대한 이러한 用法은 次後에도 繼續되어 使用된다.)

한편 需要側에서는

$$D_X = D_X(p_x, p_m, Y), \quad (2-1)$$

(-)

$$D_M = D_M(p_x, p_m, Y), \quad (2-2)$$

(+)

$$D_N = D_N(p_x, p_m, Y). \quad (2-3)$$

(+)

이때 D_X , D_M , D_N 은 各各 輸出財, 輸入財 및 非交易財의 國內에서의 需要이고, Y 는 모델의 目的과 範圍에 따라 定義되어야 할 이 經濟의 總所得이다.⁽⁷⁾

그런데 小規模開放經濟인 關係上 이 經濟에 대해 $P_x/P_M = p_x/p_m = 1/q$ 으로 定義되는 交易

(6) 以下에서 그것에 輸出主導型 經濟의 特性을 加味하고자 하는 데 基盤이 되는 方程式은 R. Dornbusch가 MIT의 國際收支科目에서 使用하는 講議錄[3]의 Chapter 5와 Chapter 9에서 使用되는 것들이다. 즉 (1)~(3) 및 (11)式이 Dornbusch의 定式化를 直接 引用한 것이 되겠다.

Dornbusch의 論議에서는 輸出財, 輸入財 및 非交易財가 함께 巨視經濟모델의 틀에서 다루어진다. 이와 對比되어 여기에서는 關心이 輸出部門에만 局限되어 있어 그만큼 部分均衡의 性格을 지니게 된다. 部分均衡의 性格의 論議에서 구태여 一般均衡의 論議에서의 定式化를 빌린 것은 그러한 方式이 보다 充實한 定式化의 길이 되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7) Dornbusch에 모델에서는 貨幣가 存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Y = Y_N + p_x Y_X + p_m Y_M$ 으로 定義된다. 以下の 論議에서는 關心이 輸出部門에만 限定이 되므로 Y 는 위의 定義와 반드시 同一할 必要는 없고 特別한 假定下에서는 貨幣가 存在하는 狀況을 구태여 排除하지 않아도 되겠다. 즉 貨幣需要는 所得의 一定 比率을 차지하고 貨幣需要는 다른 財貨의 需要보다 優先한다(money demand served first)고 한다면 貨幣를 暗黙裏에 包含하고 있는 經濟에 대해서 Y 를 總所得 또는 總所得에서 貨幣의 需要를 除外한 所得으로 볼 수 있겠다.

條件(terms of trade)은 外生的으로 주어져 있다. ⁽⁸⁾ 이에 따라 p_x 가 주어지면 p_m 이 주어질 수 있고 p_m 이 주어지면 p_x 가 역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內生的으로 決定되어야 할 有效한 相對價格이란 p_x 나 p_m 중 하나에 不過하다. 本論의 關心이 輸出部門에 限定되고 있음을 想起하고 以下 文字를 간략히하기 위해서 $p_x = p$ 로 하자. 그러면 위의 Y_i, D_i ($i = X, M, N$)式에 나타나는 p_x 나 p_m 은 모두 p 또는 qp 로 變換될 수 있다. 그러면 輸出財의 供給은 (1-1)과 (2-1)에 따라

$$X^s = Y_X \underset{(+)}{p}, \underset{(-)}{qp} - D_X \underset{(-)}{p}, \underset{(+)}{qp}, \underset{(+)}{Y}. \quad (3)$$

이제 (3)式에다가 輸出主導型 經濟의 特性을 加味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그 以前에 Y_X 나 D_X 에 있어 모두 p 의 效果가 自體價格變數인 p 를 통한 것과 自體變數가 아닌 交叉價格變數로서 qp 를 통한 것이 矛盾되고 있기에 全體的으로 X^s 의 p 에 대한 依存關係가 不分明하다. 이러한 不分明을 是正하기 위하여 自體價格變數의 偏微分係數(own partial)가 交叉價格變數의 偏微分係數(cross partial)보다 그 絕對值에 있어 크다고 假定하여 X^s 는 p 에 陽的으로 依存하는 關係를 導出하자. 즉 非交易財에 대한 輸出財의 相對價格이 높게 되면 輸出財의 供給은 늘어난다. 이런 事情을 明示하면

$$X^s = Y_X \underset{(+)}{p}, \underset{(-)}{q} - D_X \underset{(-)}{p}, \underset{(+)}{q}, \underset{(+)}{Y}. \quad (4)$$

다음 이러한 輸出品의 生産行態를 輸出品의 애초의 生産이 原則的으로 豫想된 市場條件에 의존한다는 輸出主導型 經濟의 特性(다)에 따라 修正해 보면

$$Y_X = Y_X(p^*, q). \quad (5)$$

이때 p^* 는 輸出品生産者에 의한 p 의 豫想值이다.

또 輸出主導型 經濟의 所得은 輸出部門에 依存한다는 첫번째 特性과 輸出은 輸出財의 相對價格 p 에 陽的으로 依存한다는 앞의 事情을 結合하면

$$Y = \bar{Y} + \gamma p, \quad \gamma > 0. \quad (6)$$

이때 \bar{Y} 는 p 와 獨立的인 Y 의 部分이다.

이러한 想定(presumption)은 從來 라우르젠과 메츨러[6]에 의해 創案된 想定과 軸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를 「輸出主導型 經濟의 想定」(export-oriented-economy presumption)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⁹⁾

(8) q 는 通常의 定義에 의한 交易條件(terms of trade)의 逆數이다.

(9) 輸出財와 輸入財만이 存在하는 經濟에서 Laurzen과 Metzler는 輸出財의 相對價格의 上昇으로 交易條件이 改善되면 實質所得이 增加되고 이에 따라 輸出財와 輸入財의 加重平均으로 測定한 實質支出과 貯蓄은 增大하나 輸出財로 測定한 實質支出은 代替效果의 影響을 받아 減少한다고 想定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參考文獻 [6] 參照.

(5)式과 (6)式을 (4)式에 代入하면

$$X^s = Y_x(p^*, q) - D_x(p, q, \bar{Y} + \gamma p). \quad (4')$$

(+)(-) (-)(+) (+)

다음 D_x 에서 所得效果보다 代替效果가 더 크다는 假定을 다시 追加한 다음 (4')式을 整理하면

$$X^s = F(p^*, p, q, \bar{Y}). \quad (7)$$

(+)(+)(-)(-)

여기에서의 (7)式은 生産은 豫想值에 依存하여 이루어졌고 國內에서의 需要는 市場의 要求에 모두 따랐을 경우 結果되는 海外에의 輸出可能量을 說明한다.

그런데 實際로 市場을 支配하는 輸出財의 非交易財에 대한 相對價格은 p 로서 그것은 그것에 대한 애초의 豫想值 p^* 와 相異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라)에서 觀察된대로, 輸出品生産者들은 追加로 生産을 하여 輸出을 하고 이때의 追加로 生産하고 輸出하는 適應이 效率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實現된 輸出量 X^s_R ⁽¹⁰⁾은

$$X^s_R = X^s + \alpha(p - p^*), \quad \alpha > 0. \quad (8)$$

즉 輸出財에 대한 市場條件이 애초의 豫想보다 好轉되면 實際供給量은 늘어나고 그 反對로 市場條件이 나쁘다면 實現된 輸出은 애초의 計劃值보다 적어진다. 또 이때의 適應이 迅速하고 效率的이라는 데서 α 의 絶對值는 計劃樹立時의 p^* 의 變化에 대한 供給의 適應程度를 나타내는 $F_1 = \frac{\partial F}{\partial p^*} = \frac{\partial Y_x}{\partial p^*}$ 보다 커야 한다.

이제 實現된 輸出供給行爲를 나타내는 (8)式을 定差方程式으로 置還하기 위해서는 p^* 를 規定하여야 하겠다. 一般的으로 豫想值는 數個의 過去值에 依存한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分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單純한 形態라고 볼 수 있는

$$p^* = p_{-1} - \theta \cdot pu, \quad \theta > 0 \quad (9)$$

를 取하자. 여기에서 pu 는 어떤 正常狀態를 基準으로 한 輸出補助의 強度를 나타내는 一種의 指數로서 pu 가 커지면 正常 以上の 輸出補助가 주어지는 것이요 pu 가 적어지면 輸出補助의 強度도 弱해지는 것을 意味한다.

(9)式을 볼 때 p 의 豫想值는 今期에 輸出을 強行하여 pu 를 正常 以上으로 크게 하지 않는 限 前期에서의 p 값인 p_{-1} 에 依存한다. 또 이때 正常狀態에서 pu 의 값이 零이 되도록 測定되었다고 하자.⁽¹¹⁾

輸出主導型 經濟에 대한 (6)式에서의 想定은 Laurzen과 Metzler의 想定보다 결코 強한 想定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10) 下添字인 R 은 實現된 것(realized)을 表示하고자 하여 使用한 것이다.

(11) p 에 대한 豫想은 그것의 過去值나 輸出補助制度의 運營狀態外에 世界經濟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제 (7)式을 (8)式에 代入한 다음 얻은 結果에 다시 (9)式을 代入하면

$$X^s_R = \alpha(p - p_{-1} + \theta \cdot pu) + F(p_{-1} - \theta \cdot pu, p, q, \bar{Y}). \quad (10)$$

(10)式으로서 動態過程에서의 輸出供給行爲를 規定하는 定差方程式이 마련되었다. 이 定差方程式은 앞의 豫想值를 形成하는 데 1期の 時差(time lag)를 가진 前期值만이 使用되었다는 데서 由來하여 定差方程式中 가장 單純한 形態인 一次의 定差方程式으로 되었다.

(10)式에는 短期的 供給曲線과 長期的 供給曲線이 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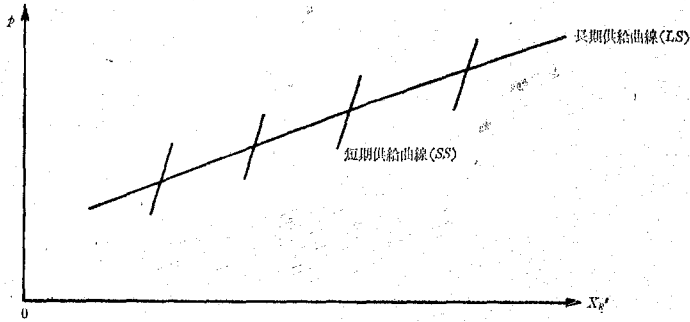
(p, X^s_R)의 空間(space)에서 본 短期的 供給曲線의 기울기는

$$\left. \frac{\partial X^s_R}{\partial p} \right|_{\text{短期}} = \alpha + F_2. \quad (10-S)$$

한편 輸出推進이 無力해지고 $p = p_{-1} = p^*$ 가 成立하는 長期에서의 供給曲線의 기울기는

$$\left. \frac{\partial X^s_R}{\partial p} \right|_{\text{長期}} = F_1 + F_2. \quad (10-L)$$

(10-S)와 (10-L)은 모두 零보다 커서 短期的 供給曲線과 長期的 供給曲線은 모두 (p, X^s_R) 空間에서 右上向의 形態를 갖는다. 즉 輸出供給行爲는 短期에서도 長期에서도 安定的이다. 뿐만 아니라 앞의 $\alpha > F_1$ 의 條件을 想起하여 볼 때 短期供給曲線의 기울기는 長期供給曲線의 기울기보다 크다. 즉 아래의 그림과 같이 價格非彈力的인 短期供給曲線(SS)과 價格彈力的인 長期供給曲線(LS)가 規定된다.



<그림 1> 長期供給曲線과 短期供給曲線

本論의 關心인 短期的 適應過程에 關한 限 短期에서의 輸出供給行爲는 短期供給曲線으로 表示된다. 이러한 短期供給曲線은 p_{-1} 을 그 說明變數의 하나로 지니고 있어 q 나 \bar{Y} 가 一定한 경우에도 動態的 適應의 進行에 따라 p_{-1} 의 값이 時間 時間 變化하는 限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長期供給曲線을 따라 移動한다. 이때 短期供給曲線上의 點中 p 가 그 前期의 p

事情에도 依存할 것이다. 그러나 p^* 를 左右하는 기타의 여러가지 要因은 本論의 分析範圍 밖에 있어 外生的으로 處理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一次의 定差方程式을 얻으려는 意圖 와 短期的 輸出推進에 대한 事情 두 가지만이 p^* 에 影響을 주는 경우로 狀況이 單純化되었다.

값 p_{-1} 과 一致하는 點에서는 $p=p_{-1}$ 및 $pu=0$ 가 成立되기에 그 點은 또한 長期供給曲線上에도 存在하는 點이 된다. $p=p_{-1}=p^*$ 인 特殊한 點이 短期供給曲線과 長期供給曲線이 交叉하는 데 있다는 이러한 事實은 次後 長期供給曲線을 따라 移動하는 여러가지 短期供給曲線의 位置를 찾는 데 有用한 準據가 된다.

2. 輸出需要行爲

이 經濟의 輸出品은 海外(rest of the world)로부터 需要되겠기에 輸出需要行爲는 海外의 需要方程式이 되어야 하겠는바, 여기서는 이에 對한 傳統의인 定式化를 받아들이면

$$X^d = H(q, Y') \quad (11)$$

(+)(+)

이때 X^d 는 海外의 輸出需要, Y' 는 海外의 所得 내지 所得 類似의 變數로서 小規模開放 經濟에 대해서는 外生的으로 取扱될 수 있는 것이고, q 도 小規模經濟에 대해서는 역시 外生的으로 주어지는 交易條件의 逆數이다.

(11)式을 받아들이는 限 어떤 一定時點에서의 海外의 輸出需要는 p 값에 關係없이 一定하다. q 나 Y' 가 變化하지 않는 限 時間의 경과에도 不拘하고 X^d 曲線이 移動(shift)할 所地가 없다.

그러나 前述되었듯이 이 經濟의 輸出品은 世界市場에서 이미 既成의 確固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11)式에서 論議된 海外需要는 그대로 顯在需要(effective demand)로 轉化되지 않고 實際의 需要는 前期의 需要量과 (11)式의 潛在需要의 差異의 一部分을 顯在化시키는 이른바 「部分的 適應의 論理」(partial adjustment scheme)의 支配를 받는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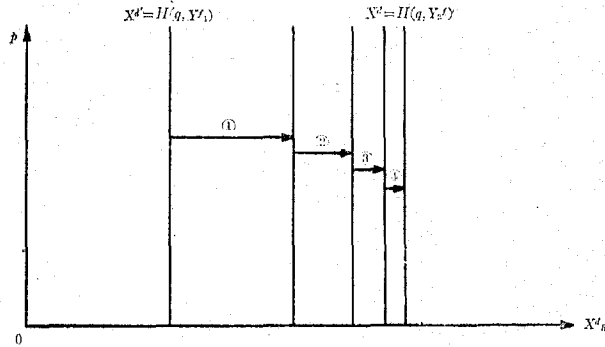
$$X^d_R - X_{-1} = \beta(X^d - X_{-1}), \quad 0 < \beta < 1. \quad (12)$$

이때 X^d_R 은 顯在化된 今期의 需要量이고, X_{-1} 은 供給과 一致하여 實際去來量으로 나타났던 前期의 需要量(=供給量)이며, β 는 適應의 速度를 나타내는 常數이다.

(12)式을 다시 써 보면

$$X^d_R = (1 - \beta)X_{-1} + \beta \cdot H(q, Y'). \quad (13)$$

(13)式으로서 短期的 需要行爲와 $X^d_R = X_{-1} = H$ 가 成立하는 長期에서의 長期的 需要行爲가 定式化되었다. 이식은 p 에 對해서는 獨立의이나 X 에 대해서는 一次 定差方程式이다. 때문에 이 식은 (p, X^d_R) 의 空間에 垂直線으로 그려지는 한편, q 나 Y' 의 變化에 의해 $H(\cdot)$ 이 變化하면 部分的 適應係數 β 의 크기에 依存하여 조금씩 조금씩 H 에 의해 規定되는 長期的 均衡點으로 接近해 간다. <그림 2>에는 이러한 事情의 一面이 나타내져 있다. Y' 의 增加로 長期的 需要曲線이 $H(q, Y'_1)$ 에서 $H(q, Y'_2)$ 로 移動할 경우에 短期的 需要曲線은 ①, ②, ③, ④...



〈그림 2〉 長期需要曲線과 短期需要曲線의 部分的 適應 ($Y_2 > Y_1$, $\beta = 0.5$)

의 숫자로 表示된 바 1段階, 2段階, 3段階, 4段階...의 適應을 通하여 長期的 需要曲線에 接近해 간다.

III. 長期均衡의 變化

여기서는 輸出主導型 經濟에 대한 外部的 衝擊으로서 世界景氣의 沈滯와 交易條件의 不利化가 가져오는 長期的 均衡點의 變化를 論究한다. 1973年 油類波動 以來 土地集約的 (land intensive)인 財貨의 相對價格이 上昇되었다. 그 結果 土地集約的인 財貨를 輸出하지 않는 소위 非產油國 또는 非資源保有國들의 交易條件은 惡化되었고, 이와 더불어 先進諸國을 비롯한 世界經濟 一般이 沈滯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침체나 非產油國 一般의 交易條件의 不利化는 輸出主導型 小規模開放經濟로서는 반드시 감수하고 그에 따라 適切한 適應을 해야 할 主要한 外部的 衝擊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變化는 一時的인 現象으로서 次後 反轉될 性質의 것이 아닌 根本的인 狀況變化로 보인다. 따라서 小規模開放經濟로서는 그것의 長期的 效果를 모두 吸收하여 適應하여야 하며, 短期에 있어서는 適應過程의 經路를 다소 바꾸는 方式의 사소한 對處만이 可能하고 正當化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이런 두가지 外部的 變化에 따르는 長期均衡點의 變化를 長期的 輸出供給曲線과 長期的 輸出需要曲線을 手段으로 하여 檢討 分析한다.

이 節에서의 論議를 위해 長期供給曲線과 長期需要曲線이 다시 쓰여지면 便利하겠다. 長期供給曲線은 (10)式에 $p = p_{-1}$ 를 代入하여

$$X^s_R |_{\text{長期}} = F(p, p, g, \bar{Y}) \quad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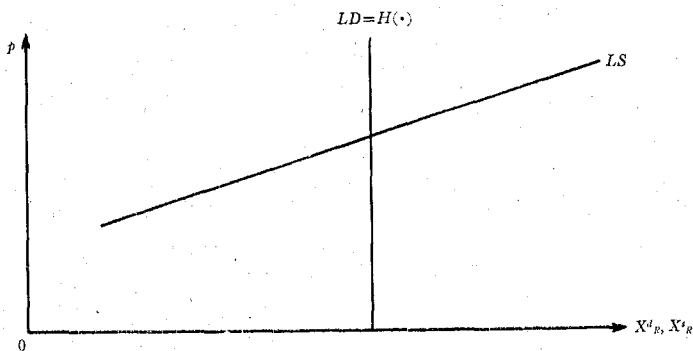
(+) (+) (-) (-)

가 되고, 長期需要曲線은 $X^d_R = X_{-1} = H$ 라는 性質에 따라

$$X^d_R |_{\text{長期}} = H(g, Y') \quad (13')$$

(+) (+)

가 된다. 前者가 바로 <그림 1>에서 LS 로서 表示된 것이고, 後者가 <그림 2>에서 H 로서 나타내져 있는 것이다. 이들을 하나의 市場에서 結合하면 <그림 3>에서와 같은 供給曲線과 需要曲線이 그려져 長期體系의 比較靜學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長期에서의 需要曲線과 供給曲線

1. 交易條件의 不利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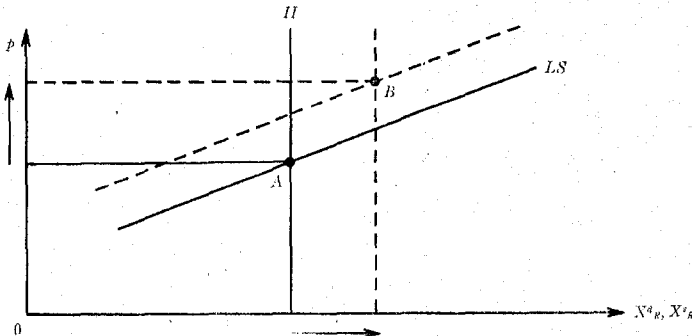
첫번째 比較靜學의 例로서 非產油國인 輸出主導型 經濟에 대한 交易條件의 不利化를 생각해 보자. 交易條件이 q 의 逆數로 定義되고 있다는 點을 想起하면 交易條件의 不利化란 q 의 增大를 意味한다.

q 의 增加는 <그림 3>의 LS 曲線을 윗쪽으로 移動시킨다. q 의 增加로 因한 $F(·)$ 의 減少는 p 의 增加를 통한 $F(·)$ 의 增加로써 補償되어야 하겠기에 LS 曲線은 q 의 增加와 더불어 上方으로 移動한다. 이 事實의 經濟的인 解釋은 아래와 같다.

非交易財의 價格이 不變일 때 輸出財의 輸入財에 대한 相對價格의 低下와 더불어 輸出財의 非交易財에 대한 相對價格은 떨어지고 輸入財의 非交易財에 대한 相對價格은 올라간다. 그 結果 生産의 패턴은 보다 적은 輸出財를 生産하고 보다 많은 輸入財를 生産하게끔 變化한다. 이에 따라 輸出財의 非交易財에 대한 從前의 相對價格에서는 相對的으로 적은 輸出財가 供給되고, 從來와 같은 規模의 輸出財의 供給이 있으려면 輸出財의 非交易財에 대한 相對價格의 上昇을 必要로 한다. 따라서 LS 曲線이 왼쪽 右쪽으로 移動한다.

다음 q 의 增加는 H 曲線을 오른쪽으로 移動시킨다. F 의 增加와 더불어 輸出財의 輸入財 및 非交易財에 대한 相對價格이 下落하겠기에 보다 많은 輸出財가 海外로부터 需要될 것이 때문이다.

이러한 LS 曲線과 H 曲線의 移動에 따라 決定된 새로운 均衡點이 <그림 4>에서 B 點으로 나타나 있다. q 의 增大로서 實現된 輸出量이 增大하고 非交易財의 價格에 대한 輸出財의 價格의 比率인 p 도 上昇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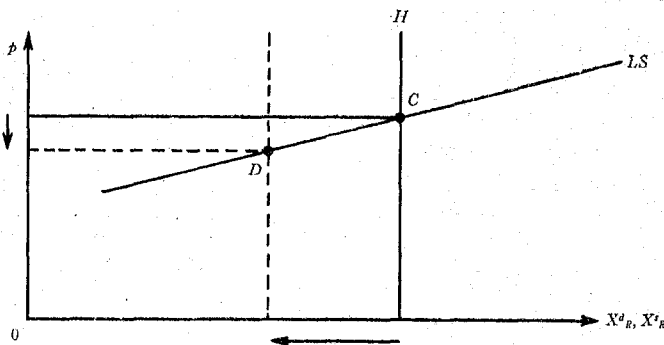
〈그림 4〉 交易條件의 不利化의 效果

交易條件의 不利化와 더불어 輸出量이 增大하는 것은 傳統的인 事實로서 當然하다. 反面 輸出財의 非交易財에 對한 相對價格이 上昇한다는 것은 一應 當然한 것 같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供給側面에서 輸出財와 非交易財間의 代替行爲를 想起해 보면 이 相對價格의 上昇도 理解가 된다. 즉 輸出量이 增大하려면 輸出財의 價格이 上昇하면서 一面으로는 國內需要를 萎縮시키고 一面으로는 輸出財의 生産을 促進하여야 하겠으나, 輸出財의 生産의 增加의 裏面에는 그것과 供給側面에서 代替關係에 있는 非交易財의 供給의 減縮이 必要하고 非交易財의 供給의 減縮은 非交易財의 價格의 下落과 結付된다. 따라서 非交易財 價格 對 輸出財價格으로 規定된 p 는 上昇한다.

2. 世界景氣의 沈滯

두번째의 外部的 衝擊으로서 世界經濟의 침체는 위의 모델에서는 Y' 의 減少로서 나타내 질 수 있다. 그런즉 Y' 의 減少는 F 에 對한 直接的 效果는 가지지 않으나 H 는 작게 한다. 즉 H 曲線을 왼쪽으로 移動시킨다. 그 結果 實現된 輸出量은 減少하고 p 도 引下된다.

相對적으로 減少된 輸出需要와 變化하지 않은 輸出供給이 對立하고 있기 때문에 當然히 實現된 輸出量도 적어지고 輸出財의 相對價格도 下落해야 된다. 이런 事情이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그림 5〉 世界景氣의 沈滯의 效果

IV. 短期的 適應過程

앞節의 外部的 衝擊에 대한 長期的 均衡의 變化에 이어, 여기서는 그러한 變化가 어떠한 過程 내지 經路를 거쳐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자. 이러한 過程 또는 經路는 連續되는 短期均衡點들로서 認識되며, 短期均衡點은 短期供給曲線과 短期需要曲線에 의해 形成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p \neq p_{-1}$ 이고 $X \neq X_{-1} \neq H$ 인 狀況에서 (10)式과 (13)式을 手段으로 하여 兩者의 交叉로서 決定되는 短期均衡點들이 時間의 흐름에 따라 變遷하는 樣像을 論究한다.

一段階에서는 輸出推進에 依한 對處가 없는 경우를 살펴보고 二段階에서는 輸出推進이라는 對處行爲를 導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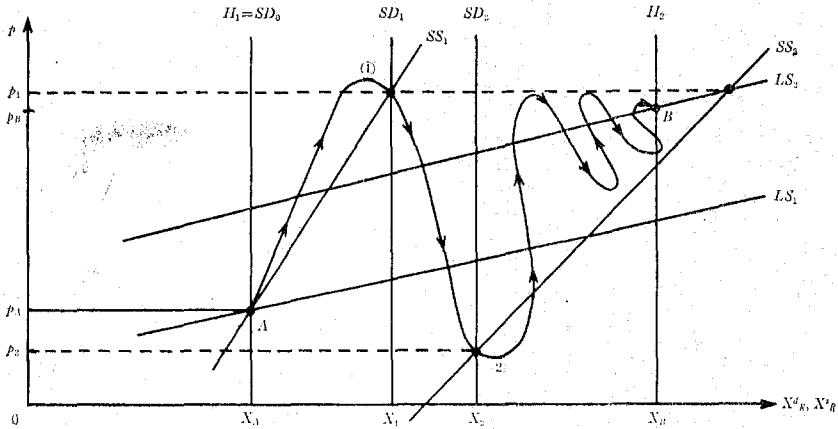
1. 交易條件의 惡化에 따르는 短期的 適應

이 衝擊의 長期的 效果는 이미 <그림 4>에서 A點에서 B點으로 長期均衡이 移動하게 하는 것임을 보았으므로, 여기에서의 關心은 A點과 B點 中間에서 어떠한 經路 또는 段階를 거쳐 A點에서 B點으로 移動하게 되느냐 하는 過程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A點과 B點의 中間에 介在된 短期均衡點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短期均衡點들은 모두 短期的 供給曲線과 短期的 需要曲線의 交叉로서 이루어 질 것이기에 <그림 4>를 다시 그리고 거기에 몇가지 短期的인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을 追加한 <그림 6>을 가지고 論議함이 便利하겠다.

<그림 6>에는 交易條件의 惡化 以前과 以後의 LS曲線과 H曲線인 LS_1 과 LS_2 , 및 H_1 과 H_2 , A點과 B點 및 LS曲線보다 非彈力的인 短期的 供給曲線(SS)들이 몇 개 그려져 있다. A點이 交易條件의 不利化 以前の 均衡點이고 B點이 交易條件의 惡化 以後의 均衡點이라는 規定에서 A點과 B點 모두에서는 LS曲線과 SS曲線이 交叉함이 알려진다.

(10)式을 根據로 하여 $p \neq p_{-1}$ 의 條件下에서 q 의 增加는 A點과 交叉하는 최초의 均衡點에서의 SS_1 曲線을 $\frac{\partial F}{\partial q} < 0$ 를 通하여 왼쪽 윗쪽으로 移動시킨다. 이때 移動의 程度는 이제는 前期의 價格(p_{-1})으로 認識되는 p_A 와 q 가 增加한 然後의 長期供給曲線인 LS_2 가 만나는 點을 지나는 SS_2 曲線으로 나타내진다. 왜 냐하면 새로이 移動된 短期供給曲線에서 p 가 p_A 와 一致하는 點을 考慮해 보면, p_A 는 q 增加 以前の 均衡價格으로 q 의 增加 直後에는 p_{-1} 으로 認識할 수 있는 바이요, 定義上 $p = p_A = p_{-1}$ 인 點은 마땅히 長期的 供給曲線에 있어야 하겠기에 q 增加後 各各 一定한 기술기를 維持하는 것으로 假定되고 있는 長期的 供給曲線과 短期的 供給曲線은 $p = p_A$ 가 成立하는 때서 서로 交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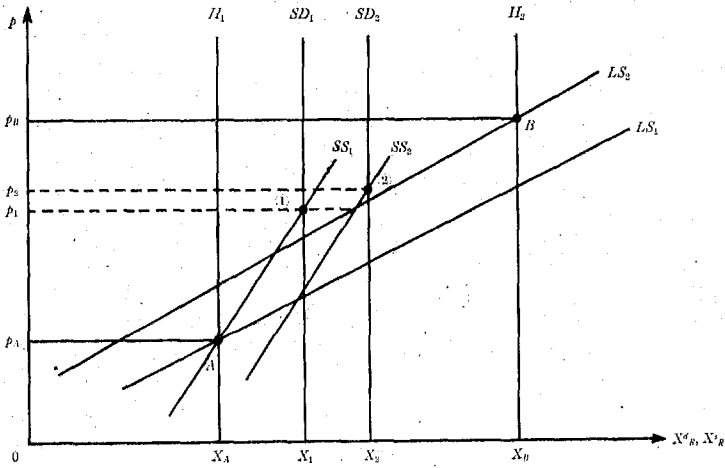
〈그림 6〉 交易條件의 惡化에 따르는 短期的 適應(I)

다음 그림을 그릴 때의 便宜를 위해 $\beta = \frac{1}{3}$ 이라 假定하고 (13)式을 根據로 하여 短期的 需要曲線의 移動을 살펴보자. q 의 增加가 있기 以前에는 短期的 需要曲線은 H_1 과 一致하여 $SD_0 = H_1 = X_A$ 이다가, q 의 增加로 $H(\cdot)$ 이 $H_2 = X_B$ 가 되도록 增大하게 됐다면 短期的 需要曲線은 $SD_1 = \frac{2}{3}H_1 + \frac{1}{3}H_2$ 가 成立하게끔 오른쪽으로 移動한다. 이 事情이 SD_2 曲線으로 나타나 있다.

q 가 增加한 直後의 短期的 均衡은 SS_2 와 SD_2 의 交叉點인 ①에서 成立한다. 〈그림 6〉의 경우에는 새로운 短期的 均衡價格은 p_1 이 되고 새로운 輸出量은 X_1 으로 表示되고 있다. 즉 短期的인 適應過程에서 輸出財의 非交易財에 대한 相對價格은 그 長期的 均衡價格을 一時的으로 上廻(overshooting)할 수가 있다.

①點은 하나의 短期的 均衡點에 不過하고 그것에는 長期的인 均衡點인 B 點으로 移動하게끔 하는 動態的 要因이 內在되어 있다. 우선 需要側面에서는 $X_1 \neq X_B = H_2$ 가 成立하는 限 $X_2 = \frac{2}{3}X_1 + \frac{1}{3}X_B$ 가 成立하게끔 SD_2 로 그려져 있는 바와 같이 短期供給曲線이 오른쪽으로 移動한다. 다음 供給側面에서는 p_1 에서의 水平線이 LS_2 曲線과 一致하는 點을 短期供給曲線이 지나도록 SS_2 가 그려진다. 그 結果 2段階에서의 短期的 均衡은 ②點에서 成立하고 $p = p_2$, $X = X_2$ 가 이 段階에서의 短期的 均衡을 特徵지우게 된다. 〈그림 6〉에 의하면 이 경우에 p 는 長期的 均衡價格 p_B 에 比해 一時的 下廻(undershooting)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點, ②點 등으로 나타내지는 動態的 適應過程은 B 點에 到達하기까지 繼續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림 6〉에 그려져 있는 것과 비슷한 經路를 거쳐 B 點에 到達하게 될 것이다.



〈그림 7〉 交易條件의 惡化에 따르는 短期的 適應(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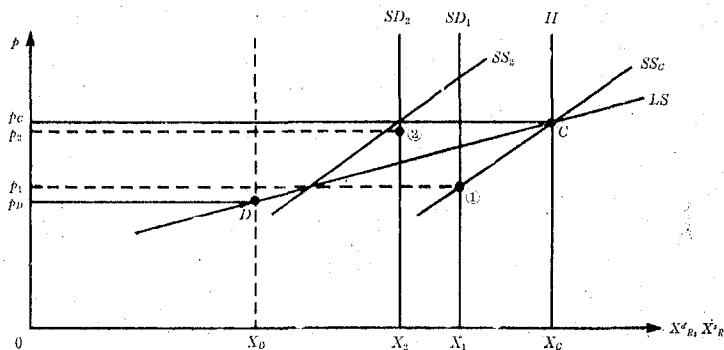
그러나 이때의 接近經路는 반드시 〈그림 6〉의 경우처럼 「振動을 가지는 均衡에의 接近」(oscillatory convergence)이 될 必要는 없다. 〈그림 7〉의 경우처럼 適應過程은 「單調로운 均衡에의 接近」(monotonic convergence)이 될 수도 있다. 一般적으로 供給側面에서 短期供給曲線의 기울기와 長期供給曲線의 기울기의 差가 적을수록, 需要側面에서 部分的 適應의 係數인 β 가 클수록, 單調로운 均衡에의 接近을 保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需要側面에서의 部分的 適應의 係數인 β 는 海外의 需要行態에 따르는 것이기에 外生的인 性格의 것이다. 反面 短期的 供給曲線의 기울기와 長期的 供給曲線의 기울기는 앞에서 觀察된 바 α 와 F_1 이 相異하다는 데 基因하는 것으로, 輸出部門에서 豫想되던 것 以上으로 輸出需要가 있을 때 그 增加分 중 可能한 最大限을 輸出하려는 行態에서 由來하는 것이다.

海外의 與件이 許容하는 限 最大限의 輸出을 피하려고 하니 最適化行爲에 따라 미리 計劃되어 있는 輸出 以上の 輸出을 하려고 하게 되고, 그 裏面에서 動態的 適應過程에 內在하고 있는 交易條件의 短期的 變動 以上の 變動을 當面하게 된다. 이는 短期的으로 輸出에 執着하고 있는 經濟가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經濟社會的 費用이라 하겠다.

2. 世界景氣의 沈滯에 따르는 短期的 適應

世界經濟가 萎縮되는 것의 長期的 效果도 이미 〈그림 5〉에서 考察된 바인데 여기서는 그 곳에서의 C點으로부터 D點으로의 移動의 過程을 觀察한다. 앞에서와 같이 LS曲象과 H曲象을 想定하고 또 애초의 均衡點에서의 長期均衡과 短期均衡의 合致를 確認하자. 다음 Y' 의 減少는 $H(\cdot)$ 을 적게 함으로써 短期的 需要曲線을 왼쪽으로 移動시킨다.



〈그림 8〉世界景氣의 沈滯에 따르는 短期的 適應

역시 $\beta = \frac{1}{3}$ 이라고 하고 〈그림 8〉에서 보면 Y' 의 減少로 短期的 需要曲線이 $SD_1 = \frac{2}{3}X_C + \frac{1}{3}X_D$ 가 되게끔 왼쪽으로 移動한다. 反面 Y' 의 減少에도 不拘하고 供給曲線에 대한 直接的인 영향은 없어 短期的 供給曲線은 애초의 均衡點인 C點에서의 그것과 同一하다. 이러한 短期的 供給曲線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왼쪽으로 移動한 短期的 需要曲線의 交叉點인 ①에서 適應過程中 첫 段階의 短期均衡이 成立한다.

①點에서 p 의 값인 p_1 이 長期均衡點과 對應하는 값인 p_D 와 同一하지 않은 限 2段階의 適應이 따라오게 된다. 앞의 q 의 增加를 다룰 때의 論理와 同一하게 短期的 供給曲線은 p_1 의 水準에서 LS 曲線과 一致하는 點을 지나도록 SS_2 로 移動하고, 또 短期的 需要曲線은 $X_2 = \frac{2}{3}X_1 + \frac{1}{3}X_D$ 가 되는 水準까지 SD_2 와 같이 移動한다. 그 結果 SS_2 曲線과 SD_2 曲線의 交叉點에서 두번째 段階의 均衡인 均衡點 ②가 規定된다.

두말할 必要도 없이 이러한 動態的 適應過程은 短期需要曲線 및 短期供給曲線, 長期需要曲線 및 長期供給曲線이 모두 D 點에서 맞나는 때까지 繼續된다. 그리고 앞서와 같이 그러한 適應過程은 單調로울 수도 있고 또 振動을 包含할 수도 있다.

3. 主導的 輸出推進에 의한 短期的 適應過程에의 對處

앞의 輸出供給行爲를 나타내는 (10)式에서 長期에서는 效果가 없으나 短期的으로는 輸出을 增大 또는 減少시키는 pu 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明示의 注目이 없었다. 여기서는 短期的 適應過程을 意圖的으로 修正하는 手段으로 본 pu 의 效果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使用하여야 妥當하겠는가를 살펴보자.

pu 가 있게 되면 p^* 가 減少되어 輸出을 줄이는 效果가 있는 一方 p 와 p^* 의 隔差를 크게 함으로써 輸出을 늘이는 效果도 가지고 있는데 $\alpha > F_1$ 이라는 條件을 想起하면 後者가 前者를 壓倒함을 알게 되어 全體的으로는 短期에서의 輸出을 크게 할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즉 動態的 適應過程의 어떤 한 段階에서 pu 가 있게 되면 그것은 그때의 短期供給曲線을 오른

쪽으로 移動시킨다.

이때 動態的 適應過程에서 短期供給曲線이 마침 오른쪽으로 移動하는 效力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pu 는 그 移動하는 程度를 더욱 擴張하고, 反對로 短期的 供給曲線이 왼쪽으로 移動하게끔 힘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pu 는 그 移動을 減殺하거나 反轉시킨다.

그러면 短期的 供給曲線에 대해 以上과 같은 影響力을 끼치는 pu 를 어떻게 活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質問에 대해 對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動態的 適應過程이 바람직스러운가를 判別할수 있는 基準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pu 로써 短期的 供給曲線을 變化시켜 短期均衡點을 移動시킬 수 있고 動態的 適應經路란 이러한 短期均衡點들의 連結에 不過하기에 pu 를 가지고 動態的 短期的 適應經路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즉 pu 를 輸出主導型 經濟의 輸出部門에서의 短期的 安定化政策手段(short-run stabilization policy measure)으로 認識할 수가 있다.

앞에서 外部的 衝擊에 의해 變化한 長期均衡點에 대한 接近의 樣狀에 두가지가 있음이 觀察되었다. 單調로운 均衡에의 接近과 振動을 가지는 均衡에의 接近이 그것이었는데, 아마도 前者의 경우가 後者보다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여겨진다. 終局的으로 이미 確定된 長期均衡點에 到達하기 위한 것이라면 심한 振動을 거쳐 잘못된 情報(false information)를 傳達하며 均衡에까지 進行하기 보다는 經濟의 餘他部門에 대해 漸進的 適應을 誘導하는 振動幅이 적거나, 더 나아가서는 單調로운 適應過程을 가지는 均衡에의 接近이 相對的으로 經濟社會에 적은 희생을 주는 適應이 되리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點은 適應의 規模가 크면 클수록 適應에 드는 事實上的 費用(adjustment cost)이 加速的으로 增大될지도 모른다는 點을 想像해 보면 더욱 確實해 진다.

이러한 理解에 따라 아래에서는 振動이 있는 適應過程을 그 振動幅을 줄이거나 單調로운 適應過程이 되도록 適應過程을 變換시키는 것이 短期的 安定化手段으로서 輸出推進의 課題라고 보기로 한다.

그러면 輸出推進 또는 輸出補助制度의 運營의 方案이 決定될 수 있다. 比較的 單調로운 適應經路를 基準으로 하여 每時點마다 豫見되는 短期均衡點이 이 經路의 上位에 存在하여 바람직스러운 程度 以上の 適應이 있을 때에는 pu 의 程度를 줄여 短期均衡點이 單調로운 適應經路에 가까이 오도록 誘導하고, 反對로 豫見되는 短期均衡點이 이 經路의 下位에 存在할 경우에는 pu 의 強度를 크게 하여 역시 그 經路의 部近에서 短期均衡이 成立하도록 誘導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輸出需要行爲에서의 部分的 適應係數(β)의 값이 적을수록, 輸出供給行

爲에 있어 短期的 供給曲線의 기울기와 長期的 供給曲線의 기울기의 差異가 클수록, 適應過程에 振動이 있고 그 振動幅이 클 可能性이 있다. 그런데 輸出主導型 經濟의 世界市場에의 進出이 年淺하면 年淺할수록 β 의 값이 작을 것이고, 輸出主導型 經濟의 輸出品生産者들의 豫想이 實際 展開될 相對價格보다 다르면 다를수록 長期的 供給曲線과 短期的 供給曲線의 기울기의 差異가 클 可能性이 있겠다. 따라서 輸出主導型 經濟의 初期에는 振動하는 適應過程이 나타날 可能性이 많고 이를 克服하기 위해 安定化手段으로서 올바른 輸出推進을 遂行해야 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輸出主導型 經濟의 初期에는 보통 훌륭한 安定化政策을 執行할 能力이 不足할 可能性이 많다. 安定化政策의 遂行이 결코 容易하지 않다는 安定化政策論에서의 一般的 觀察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確認되고 있는 바라 하겠다.

V. 餘 言

여기서는 以上の 分析의 地點들이 되는 論旨를 다시 한번 確實히함으로써 結論에 代身하기로 한다.

첫째 輸出主導型 經濟로서는 輸出을 調整하고자 하여 여러가지의 積極的인 努力을 할 것이나, 長期的으로 輸出은 海外的 輸出品需要에 依存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輸出需要의 事情을 無視한 채 輸出品의 供給側에서 들이는 努力은 들인 努力의 熱度에 비해 期待하는 바 效果를 가져올 수가 없을 可能性이 크다.⁽¹²⁾

둘째 土地集約的 製品的 相對價格의 上昇에 따른 資源이 不足한 輸出主導型 經濟에게 交易條件이 不利해지거나 世界經濟의 一般的 沈滯가 나타난다는 것은 小規模開放經濟로서는 克服不可能한 客觀的 與件의 變化들이 되겠기에 이들에 대한 賢明한 適應만이 課題가 된다. 이때의 適應過程이란 比較的 短期的 現象으로서 輸出主導型 經濟의 主體的 努力이 效果를 볼 수 있는 可能性이 存在하는 領域이다.

세계 世界的인 與件의 變化에 對應해 小規模經濟는 어떠한 適應過程을 거쳐 나아갈 것인가를 決定하여야 한다. 選好되는 適應經路(adjustment path)가 決定되고 나면 短期的 安定化의 手段들을 動員해서 經濟의 움직임을 그러한 選好되는 適應經路로 誘導해 갈 수가 있다. 이때 輸出補助制度의 運營은 輸出部門에 대해 대단히 強力한 安定化手段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手段의 驅使는 다른 安定化의 手段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效率的인 運用이 결코 容易하지는 않을 것이다.

(12) 다만 海外需要의 條件을 바꾸는 輸出主導型 經濟의 輸出마케팅努力 등은 여기에서의 努力의 範圍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當然히 效果를 가질 수 있다.

參 考 文 獻

- [1] 朴宇熙·韓昇洙·鄭基俊, 『輸出先導型 成長模型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1977.
- [2] Bryant, R.,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Independent Nations*, Brookings Institution, 1980
- [3] Dornbusch, R., and S. Fischer, *Macroeconomics*, McGraw-Hill, 1978.
- [4] Dornbusch, R., *Open Economy Macroeconomics*, MIT(Lecture Note), 1979.
- [5] Gardner, R., S. Okita and B. Udink (eds), *OPEC, the Trilateral Worl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New Arrangements for Cooperation, 1976~1980*, The Triangle Papers 7.
- [6] Laffer, A., and D. Meiselman, *The Phenomenon of Worldwide Inflati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75.
- [7] Laurzen, S., and L. Metzler, "Flexible Exchange Rates and the Theory of Employment,"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Vol. 32 (Nov. 1950).